

장성군 ‘빈센트의 정원’서 노란 봄꽃축제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화사한 꽃동산 꾸미고

고흐 작품 20여점 전시

장성역 앞 작은 정원에서 시작된 ‘장성 빈센트의 봄’ 축제가 4월 7일 예술과 함께 즐기는 봄꽃축제로 거듭난다.

장성군은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 간 장성역 앞 정원에서 ‘빛 ~ 비밀코드 옐로우’를 주제로 ‘2017 빈센트의 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인 ‘빈센트의 봄’은 장성군이 민선 6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옐로우시티’의 의미와 가치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소규모 꽃 정원 축제다.

장성군은 장성역 주변을 꽃과 함께 세계적인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를 테마로 문화예술의 감성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특색있는 공간으로 꾸며 전국 상춘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장성군은 봄꽃 축제답게 장성역 바로 앞 공간을 튜립 가득한 빈센트 정원으로 조성하며, 반 고흐의 대표 작품 20점을 전시해 예술적 감성이 녹아있는 정원으로 꾸밀 계획이다. 또 도로 건너편 교통섬 2곳은 화사한 봄꽃을 품은 쌍둥이 정원으로 조성된다.

4월 8일 열리는 오프닝은 ‘빛 ~ 비밀코드 옐로우’ 주제에 걸맞은 퍼포먼스도 준

비돼 있다. 장성군은 드레스 코드를 ‘옐로우’로 설정하고 관람객이 노란색 아이템을 착용한 뒤 정원 사이를 거닐며 축제를 즐기고도록 할 예정이다.

군은 또 정원 바로 옆에서 컬러 뱅킹 등 다양한 간식거리를 판매하고, 지난해 장성 대표음식으로 선정된 ‘닭살불구이’를 시식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역 앞 작은 정원이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받은 덕분에 봄꽃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장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문화와 예술, 꽃이 가득한 옐로우시티의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화순경찰 상반기 의경 어머니회 정례회

화순경찰(서장 박영덕)은 “최근 경찰서 4층 적벽마루에서 2017년 상반기 의경어머니회(회장 김영희)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영덕 화순경찰서장은 “항상 의경대원을 생각해 주시는 등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의경어머니회원들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린다”며 “대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담당하고 야무진 의무경찰이 될 수 있도록 쾌적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경찰과 의경어머니회는 매년 대원들을 위한 위문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순=나성종기자 nsj@

장성 황룡강변 옐로시티 명소 조성

미락단지 ~ 황미르랜드 구간 황설리화·개나리 식재

장성 황룡강이 황설리화 가득 피는 ‘옐로우 시티’ 명소로 조성된다.

장성군은 “최근 군민과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성호 미락단지 옆 황룡강 주변에 황설리화와 개나리, 야생화를 식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성군은 장성의 대표 미락단지와 황미르랜드 구간 1km에 황금색 수종인 황설리화 800본과 개나리 나무를 식재했으며, 식재구역마다 담당부서의 이름을 표시하는 ‘실명제’를 통해 굳게 뿌리 내릴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황설리화’는 겨울 끝자락에 꽃망울을 틔어 이른 봄에 개화하는 수종으로 일찍 꽃을 피워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도 알려져

있다. 장성군은 이번엔 식재한 황설리화와 개나리가 만개하면 매년 1월 중순부터 3월까지 노란꽃이 피는 황룡강변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겨울에는 황설리화, 봄에는 개나리, 여름에는 야생화가 꽃을 피울 것”이라며 “황룡강을 사시사철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난해 우수한 산림정책으로 ‘숲속의 전남 만들기’ 대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도 장성의 대표목인 편백나무를 육성하기로 하고 산소유주와 협의해 26만 그루를 추가로 식재하는 등 명품숲으로 가꿀 계획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유두석(가운데) 장성군수와 지역민들이 최근 장성호 미락단지 옆 황룡강 주변에서 황설리화와 개나리 등을 식재했다. <장성군 제공>

화순군청 배드민턴팀

전국 리그 여자 단체부 3위

화순군청 배드민턴부가 ‘2017 전국복합종별 배드민턴리그전’ 단체전 3위에 입상했다.

30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밀양시 밀양시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화순군청 배드민턴부는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3위에 올랐다.

정명희 화순군청 배드민턴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것은 화순군의 든든한 지원과 열심히 노력한 선수와의 혼연일체가 이뤄낸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배드민턴 대회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나성종기자 nsj@

담양군 문화생태도시 조성 사업 본격 착수

문화관광부 공모사업 선정

문화예술 활동 사업비 지원

내달 10일 문화회관에서 설명회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군이 품격 있는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30일 담양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및 담양을 구도심구간 활성화 위한 ‘창작공

간조성 입주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은 국악, 음악, 미술, 사진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에 최대 1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독창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선정한다.

또 창작공간조성 입주자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창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 아트상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비, 마케팅 및 인테리어 사업비를 개소 당 60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담양군은 이같은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

의 이해를 돕고, 많은 군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4월 10일 오전 10시 담양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설명회도 개최한다. 설명회 등과 관련한 문은 문화생태도시팀(061-380-3468)으로 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문화예술인, 군민 및 관광객들과 교류하는 수준 높은 공연, 볼거리와 체험거리 등 다양각색의 문화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해 잠재한 담양을 구도심구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일자리 창출하는 등 담양 문화예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화순군 복숭아 재배농 40명 기술컨설팅

화순군이 지역대표 특산품인 복숭아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30일 화순군에 따르면 복숭아 재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품질 좋은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현장으로 기술컨설팅’을 추진한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팀 주관으로 농촌진흥청 현장예로기술단이 참여하는 이번 컨설팅은 오는 4월 5일 관내 재배농가 40여명을 대상으로 능주면 원지리 농가에서 열린다.

컨설팅은 토양, 병해충, 수형관리 등 각 담당 분야 전문가가 현장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은 지난 3월 9일에도 자두 재배농가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컨설팅을 추진했으며, 참여농가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과수 중 가장 많은 재배 면적을 차지하는 복숭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이번 컨설팅을 마련하게 됐다.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화순군농업기술센터(061-379-5423)로 문의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복숭아는 화순을 상징하는 특산품으로 전남에서 가장 많은 310여 농가 190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매년 96억 여원의 조수익을 내고 있다. 화순 복숭아는 온화하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데다 배수가 잘되는 지리적 여건 덕분에 당도가 높고, 비타민C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순=나성종기자 nsj@

장성군 동네체육시설 1인 1시설 책임관리제 시행

장성군이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을 대

상으로 관리자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주민건강과 직결된 체육시설의 설치부서가 제각각이어서 종합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성군은 “최근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11개 읍면에 설치된 공공체육시설 중 동네 단위로 설치된 99개소 체육시설에 대해 ‘1인 1시설 관리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네 체육시설 관리자 실명제’는 읍면 공무원과 마을주인을 관리자로 지정해 매월 1회 이상 시설 상태를 점검하는 관리하는 제도다.

책임자로 지정된 공무원과 주민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해 장비와 기구 및 안내표지 등을 살피고, 파손되거나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부동산
중개법인

한 국 토 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 상가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격 1,650,000,000

광산구 옥동 공장

대지 500평
건물 419평
최저가 776,000,000
감정가 1,108,000,000

서구 차평동 근린상가(세정아울렛)

전용면적 35평
최저가 721,000,000
감정가 1,610,000,000

동구 충장로57가(업무시설)

대지 400평
건물 329평
최저가 3,304,000,000
감정가 3,406,000,000

담양 담양읍 삼만리 근린시설

대지 1073평
건물 336평
최저가 540,000,000
감정가 1,506,000,000

서구 쌍촌동 원룸

토지 86평
건물 340평
최저가 788,000,000
감정가 1,125,000,000

동구 금남로3가 근린시설

토지 118평
건물 305평
최저가 742,000,000
감정가 1,059,000,000

운림동 기전빌라

22평형 6가구 (수역성 전용)
대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 5억2천만원
세대당 용지 6,000만원 월세45만원

제일오피스텔 29층

감정가격 9,000만원
매매 6,300만원
보증금 500만 월세 25-40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